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며칠 전 휴일에 혼자서 근교의 산을 찾았다. 평소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다른 일로 바빠서 하는 수 없이 혼자서 등산을 하게 된 것이다.

는 생각이 들면서 등산로 입구에서 본 기도원이라는 표지판이 떠올랐다. 아마 기도원에 왔던 열성신도들이 산상기도를 하

우리들의 하느님

가까이 가보니 웬 남자 한 명과 여자 셋이 울부짖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것으로 보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으로 반복되는 것이었다.

러 온 것이려니 짐작이 가면서 놀란 가슴은 좀 진정되었으나 웬지 불쾌하고 쓸쓸한 뒷맛은 가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기도는 끝방에 숨어서 하고, 더욱이 금식할 때는 남에게 티를 내지 말라고 가르쳤다. 내가 존경하고 아내가 '성자'라고 부르는 독일인 신자이자 '몽실 언니'의 저자인 권정생 선생은 생전에 한국 교회의 폐단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일부 교회의 해외전도를 못마땅해 하셨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이 지경인데 먼 나라까지 선교사업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허영에 불과하다"고 그는 나무란다.

그는 교회도 선 명에서 백 명 정도가 모여 앉아 세상 얘기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동네 사랑방으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가끔씩은 가까운 절간의 스님을 모셔다가 부처님 말씀도 듣고, 절쟁이 할머니도 모셔 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마을 훈장님 같은 분께 공자님 맹자님 말씀도 듣는다" 그런 교회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 토착화된 교회, 한국적인 기독교, 우리들 모두의 하느님은 없는가.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무자격 원어민 강사 판치는 광주 학원가

무자격 원어민 강사와 이들을 고용한 외국어 학원 대표, 알선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3일 회화지도자격(E-2비자) 없이 강사로 취업한 외국인 17명과 이들을 고용한 어학원 대표 19명, 브로커 등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강사들은 관광, 유학, 종교비자로 입국한 뒤 어학원 19곳에서 시간당 최고 3만원씩 받으며 강사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어학원 대표들은 월 부당금이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원어민 강사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무자격 외국어학원들을 소개받아 회화강사 등으로 불법고용했다고 한다.

무자격 원어민 강사들이 국내 학원 또는 학교에 취직해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에서는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흡입, 투약하거나 성추행 전과자가 버려야 할 것이다.

88고속도로 확장 지연 설득력 없다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영·호남 7개 기초자치단체들이 88고속도로의 조기 확장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고속도로의 확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인접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기간시설의 중부투자 등을 들고 있지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투자와 효율 등의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정부가 내세운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균형개발도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88고속도로는 개통 때부터 영·호남 화합과 교류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교통량도 지리산권 개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고속도로 폐쇄'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확장공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다.

無等鼓

지난해 6월 19일 브리티시오픈 골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영국 리버풀로 건너간 미국 골퍼 선수 존 달리는 기타를 매고 비틀스가 공연했던 케어빌 클럽을 찾았다. 그리고 멋진 기타 실력을 뽐내며 '천국의 문을 두드려라(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노래를 불렀다.

골프와 인생



마치 골코 많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것처럼 이글에서 트리플보기까지 적어낸 숫자는 골고루 다 적어냈다. 이번 대회에서 사울 내내 선두를 달리며 웃었던 세르히오 가르시아도 결국 마지막에 무너지며 부진을 삼켰다.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마지막에 웃은 '준우승 전문가' 파드리그 해링턴은 "가르시아는 인생과 꿈을 이룰 것"이라며 어느덧 준우승자를 위로하는 위치에 올랐다.

NGO 칼럼

최강은



최근 만난 수도권에 사는 친구는 전라도에만 오면 눈에 확 띄는 간판 문구가 '녹색의 땅 전남'이었다. 그 친구는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남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홍보 문구가 '아껴둔 땅' '녹색의 땅'이라는 한탄 같아서 슬펐다고 한다.

역이 생산하는 농산물 품목을 제한해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지난 1984년 정부수매가 중단돼 개방 농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우리 밀은 우리 국민의 제2식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와 '우리밀농협'인 민간단체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패스트푸드' 해악 '로컬푸드'로 막자

일시적으로 허기를 채우는 패스트푸드와는 그 격과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쟁에서 불리하고, 유통망의 협소함 등이 원인일 것이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먹을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이 운동은 뉴욕·오슬로·하와이·캐나다·인도의 라다크와 국내 등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전 품목의 농산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학교·군대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사용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WTO체제 운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운동은 생산자와 인근지역의 소비자를 연결하며, 지역의 필요에 의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며 지역의 자연조건과 환경에 맞는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수요가 많아 지역 농산물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전남의 농산물을 대신 유통할 수도 있어 광주·전남의 브랜드 가치를 덩달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환경과 식품 안전을 해치며, 나아가 시장의 논리가 지

다. 이런 경우 과속 운전을 위해 종이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단속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식별 안되는 저지분한 후번호판도 철저 단속을

호남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과속 감지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대형 화물 트럭이 경적 소리를 내며 다른 차량들 사이를 끼어들며 질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방지한 채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현·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비어드 드레곤 머리 위



비어드 드레곤(Bearded dragon·사막 도마뱀의 한 종류)의 머리 위에 달려 있는 것은 뿔까?

것일까. 당연히 벌레도 도마뱀을 차갑고 울퉁불퉁한 것 정도로 여긴다.

근종인 것 같은데 잠시 올라간 것인지, 평소에도 저렇게 붙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경계심을 풀고 편안하게 앉아 있다보면 어느새 살인마로 돌변한 도마뱀을 목격한다. 조금전까지 쉼터 역할을 했던 그 살갑던 도마뱀이 아니다. 차갑게 변신한 뱀이다.

도마뱀의 먹이인 '밀웬'이다. 살아있는 것을 먹이로 하는 것은 뱀이나 도마뱀이나 같다.

절터였는데 사용된 하찮은 미물이 자신을 잡아먹는 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파충류는 냉혈동물이다. 차가운 피를 가진 동물들을 살펴보면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침착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쯤 되면 소름끼치는 낚람 특집 못지 않다. 다가오는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게 삼켜버리는 반면 배가 부르면 한없이 관대해진다. 먹이가 되는 닭이나 벌레들이 자기를 장난감 다룬듯 올라타고 놀아도 내버려둔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행여 떨어지거나 할까 박제처럼 움직이지 않을 정도다.

배가 고파 일탄 먹으려고 하면 잔인하게 삼켜버리는 반면 배가 부르면 한없이 관대해진다. 먹이가 되는 닭이나 벌레들이 자기를 장난감 다룬듯 올라타고 놀아도 내버려둔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행여 떨어지거나 할까 박제처럼 움직이지 않을 정도다.

다가오는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한 순간에 가는 것이 천적에게 당할 지 몰라 항상 주위를 살피고 긴장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온 것일까.

머리를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귀찮은 수 있을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지역문화 주춧돌 사립박물관 적극 지원해야

우리나라 사립박물관 2백여곳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사립박물관은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 설립자가 오랫동안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한 문화재들을 보유해 국공립 종합박물관과 차별화된다.

야 할 중요한 유·무형 문화재를 사비로 보존해 주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방색을 대변하는 지역문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립박물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속히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근시안적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립박물관은 국가가 보존·관리해야 할 중요한 유·무형 문화재를 사비로 보존해 주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방색을 대변하는 지역문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립박물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속히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립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이 못하는 틈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국 사립박물관 관람객이 1년에 1천만명이나 된다 그 존재 가치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사립박물관은 국가가 보존·관리해야 할 중요한 유·무형 문화재를 사비로 보존해 주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방색을 대변하는 지역문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립박물관은 국가가 보존·관리해야 할 중요한 유·무형 문화재를 사비로 보존해 주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향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지방색을 대변하는 지역문화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취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